



모판 설치
분주해진 들녘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은 요즘 광주·전남 들녘이 분주하다. 3일 오후 광주시 남구 대지동 들뜰에서 농민들이 모판 설치작업을 하고 있다. /남부기자 mjna@

대우일렉 인수자 잘못 골랐다

이런계 엔텍합 대금납부 세차례 연기...10년째 주인 못찾아 지역경제 큰 피해

대우일렉트로닉스(이하 대우일렉)의 매각 작업이 지연되면서 기업 가치가 떨어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다. 지역 경제계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며 서둘러 주인을 찾아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3일 인수합병(M&A) 업계와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대우일렉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란계 다국적기업 엔텍합그룹이 인수대금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매각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4월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지 꼬박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인수대금과 회사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R&D) 투자비용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엔텍합은 지난해 4월 대우일렉 우선협상자로 선정돼 같은 해 11월 본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엔텍합이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으면서 지난해 12월7일까지 제출하기로 한 투자확약서(LOC)를 내지 못했고, 채권단은 계약 종결일을 두달간 연기해왔다. 그러나 엔텍합은 지난 2월7일에도 투자확약서를 내지 않아 채권단은 다시 2개월 연장했다가 1개월을 추가로 늦춰졌다.

엔텍합은 대우일렉 인수를 위한 계약금 578억원만 납부한 상태로 잔금 등 총 4137억원을 추가 납입해야 한다. 엔텍합은 자체 자금과 국내 금융권 차입, 전환사채(CB) 발행 등을 통해 인수대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연합이 대 이란 제재를 가하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대우일렉 매각 작업이 지연되면서 기업 가치가 빠른 속도로 떨어

지고 있다. 또 신제품에 대한 기술 개발과 신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경쟁력도 하락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 등 세계 18개국에 주요 생산 및 판매법인을 두고 있는 대우일렉은 지난해 매출 1조2829억원, 영업이익 152억원을 기록했다. 2009년보다 매출(1조1271억원)은 조금 늘었지만 영업이익(409억원)이 60% 이상 크게 감소했다. 직원들의 사기도 크게 떨어졌다. 10여년 동안 임금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 관계자는 "최근 채권단을 만나 매각 진행상황과 임금협상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대안을 찾지는 못했다"며 답답해 했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광주 가전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우일렉이 10여년동안 주인을 찾지 못해 경영이 흔들리고 경쟁력을 잃고 있다"며 "가장 큰 피해자는 대우일렉과 지역경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기로에 선 민주당

아권통합·외연확대

진보진영 연대 넘어 통합 총·대선 1대1 구도 싸야

정권탈환 위해 야권 단일정당 필요
기득권 포기 외부인사 영입 나서야

4·27 재보선에서 보여준 '야권 연대'의 위력이 통합 논의로 이어지면서 야권이 꿈틀거리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민주당이 그 중심에 있다. 민주당은 강원도와 분당을에서 승리해서 야권 연대의 효과를 제대로 본 반면 국민참여당은 후보 단일화에도 불구하고, 뼈 아픈 패배를 당했다. 민주당도 민주당의 양보(무공천)를 바탕으로 호남에서 의석을 가져가며 야권 연대의 힘을 보여줬다. 이에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번에 야권연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다시 느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나아가 야권 통합을 밀어붙이겠다는 기세다. 이는 그동안 연대가 가지는 한계를 여실히 느꼈기 때문이다. 공정한 후보 단일화보다는 다수당의 양보나 소

수당의 패쓰기가 관을 쳐 연대 효과를 최대화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번 재보선 과정에서 야권연대 협상을 맡았던 민주당 이인영 최고위원은 "연대·연합의 수위를 통합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면 확실한 1대1 구도를 만들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야권의 통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야권 단일정당 창당운동을 추진해온 '국민의 명령' 문성근 대표는 "이번 선거를 통해 후보단일화가 얼마나 비효율적 방법인지 확인됐다"며 "야 4당은 '정파 등록제'를 도입하는 야권 단일정당 건설을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야권 통합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국민참여당은 민주당과 통합을 흡수로

생각하고 있으며 민주노동당은 이념과 정책 면에서 민주당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야권의 연대·통합 논의는 광주·전남의 총선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순천에서 승리한 민노당이 내년 총선 연대 과정에서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민주당이 이 같은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는 힘들지만 수도권 총선 승리와 정권 탈환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때문에 후보 단일화에 대한 원칙을 미리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다른 야당의 요구를 건넬로 논의하기보다 큰 틀의 연대 원칙을 정해서 후보단일화를 해야 민주당 후보들도 이에 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3일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후보 단일화가 돼야 밀실에서 서로 주고 받는 식의 야권 연대로는 한계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면에 계속>

알림

제38회 光日 보훈대상

광주일보사가 제정한 光日 보훈대상이 올해로 38돌을 맞이합니다.

光日 보훈대상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꿋꿋하게 삶의 터전

을 꾸려가는 모범 국가 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게 자활의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추천을 바랍니다.

■ 포상 추천 대상자

-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으로서 자립에 성공한 사람으로 타의 모범이 된 사람
- 중상이자의 배우자로서 중상이자의 정신적·신체적 지주가 되어 삶의 의지와 보람을 갖도록 조력한 사람

■ 접수

2011년 5월 11일(수)까지

■ 발표

2011년 6월 6일(화) 광주일보

■ 시상

5명(상금 각 100만원 및 부상)

■ 시상일시

2011년 6월 15일(수) 오후 3시

■ 장소

광주지방종합청사 2층 대강당

■ 문의

광주지방보훈청 보훈과(062-975-6642)

주최: 光州日報社 후원: 광주지방보훈청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 문의 대학원 062)605-1115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교
061) 360-505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광주·전남이 최적지!

서로 싸울일이 아니라 삼각벨트가 최선입니다!



- ✓ **핵심시설 중이온가속기, 지진 안전지대가 필수입니다!**
광주·전남에는 강도 4.0 이상 지진이 단 한차례도 발생한 적이 없는 국내 유일의 지진 안전지대입니다.
- ✓ **과학벨트의 경제성, 부지확보를 따져봐도 광주입니다!**
광주에 있는 국유지 200만평, 정부 고시가격이 3.3㎡당(1평) 1만 2천원 수준입니다.
- ✓ **과학자들이 모여 연구하기 좋은 정주환경, 광주가 최고입니다!**
대한민국 문화수도, 정부지정 녹색도시, 수능시험 1위의 교육도시, 저렴한 주거비용
- ✓ **기초과학 → 응용기술 → 산업화를 생각해도 역시 광주뿐입니다!**
세계 10위 광주과학기술원, 광주 R&D(연구개발) 특구, 10년만에 광산업을 25배 성장시킨 광주의 저력!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호남권유치를 위한 300만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